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뻠짜실라: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체제하에서의 활용방법 비교*

고 우 성**

목 차

- I. 서론
- II. 뻠짜실라의 탄생
- III. 뻠짜실라와 1945년 헌법
- IV. 뻠짜실라와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
- V. 뻠짜실라와 수하르토의 신질서
- VI. 결론.

I. 서론

동남아시아 전문가의 한사람인 Neher 교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통상 3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이것은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안정된 정치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이것은 복잡한 현실세계를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시켜주고, 기존의 정치문화와 일치하게 해준다. 셋째, 이것은 정치행동목표를 제시해 준다(Neher 1961, 127-28).

1945년 8월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언한 이래 뻠짜실라는 대외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대내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이질적인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뻠짜실라가

* 이 글은 1997년 한국동남아학회 년례학술회의 및 총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수정본이다. 당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양승윤 교수님과 김형준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체제와 수하르토의 신질서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데에도 한 몫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뻘짜실라는 건국이념이나 국가철학이나 또는 시민종교나하는 본질적 성격의 규명에 앞서 우선 네허교수가 지적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뻘짜실라의 역할이 언제나 안정적 정치질서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독립을 전후하여 국가의 건국이념을 둘러싸고 표출된 긴장관계외에도 1983년에 제정된 대중조직법에 대한 논쟁과 1984년의 탄중 뿌리옥사건 등은 뻘짜실라가 뻘짜실라 반대자들에게 갈등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통합과 갈등이라는 양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뻘짜실라의 실상을 파헤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뻘짜실라의 원래의 의미와 탄생배경을 알아본후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와 수하르토의 신질서체제가 그들 체제의 정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뻘짜실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비교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뻘짜실라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과연 국가이념 또는 시민종교(Civic Religion)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변성을 가진 정치이데올로기로서 단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할 것인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뻘짜실라의 탄생

뻘짜실라는 일본이 후원한 인도네시아독립준비위원회¹⁾의 첫번째 회의(1945년 5월 29일-6월 1일)의 마지막 날인 1945년 6월 1일 수카르노에 의해 소개되어졌다(*The Birth of Pancasila* 1961, 7, 17; Oey, 2; *Commemorating the Birth of Pancasila*, 9). 독립준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행해진 수카르노의 연설문인 "뻘짜실라의 탄생(the Birth of Pancasila)"에 의하면, 뻘짜실라는 복합어로서 인도네시아가 독립국가가 되기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할 5가지의 건국원리(민족주의, 국제주의, 민주주의, 사회정의, 신에 대한 믿음)를 일컫는다.

5가지의 원리중 첫번째는 민족주의이다. 수카르노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국가는 인도네시아민족국가이어야지 여러 종족의 복합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1) 인도네시아독립준비위원회는 라지만(Rajiman) 박사를 의장으로한 67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독립에 따른 국가의 기본골격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시말하면, 민족주의는 자바종족주의, 수마트라종족주의, 또는 보르네오종족주의와 같은 편협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표방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바, 수마트라, 보르네오는 수마트라로부터 이리안 자야에 이르는 통합된 전체 인도네시아국토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The Birth of Pancasila* 1961, 17-22).

두번째 원리는 국제주의로서 민족주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족주의는 고립주의나 배타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국가는 단지 세계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계주의와는 다르다. 세계주의는 인도네시아민족주의, 일본민족주의, 미얀마민족주의 등과 같은 주권에 기초한 세계속에서의 민족주의의 다양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는 반드시 단일국가를 수립하고, 그리고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세계와의 우의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The Birth of Pancasila* 1961, 22-23).

세번째 원리는 만장일치(mafakat), 대표(perwakilan) 및 토론을 통한 합의의 도출(musyawah)을 기하는 인도네시아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수카르노는 합의에 의한 민주주의 원리가 인도네시아국가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 한사람이 한표씩 행사한후 다수결원칙에 의해 결정하는 서구식 민주주의는 분열, 착취, 부패를 야기할 뿐이며, 협의에 의해 만장일치에 도달하는 합의적 민주주의는 종교적 안전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인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The Birth of Pancasila* 1961, 23-25).

네번째 원리는 사회정의 또는 사회복지이다. 수카르노에 의하면 정치적 민주주의의 달성 자체가 자동적으로 경제적 복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난의 퇴치가 정의롭고 번영된 인도네시아국가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공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The Birth of Pancasila* 1961, 25-27).

끝으로 다섯번째 원리는 유신원리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국가는 세속적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들을 포괄하고 있는 유신국가라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와 연관하여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인들은 반드시 신을 믿어야 하지만, 종교적 이기주의를 벗어나 호혜적 입장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들 자신의 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The Birth of Pancasila* 1961, 27-28).

수카르노는 위의 다섯가지 원리는 또한 세가지 원리(Trisila), 즉, 사회적 민족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신에 대한 믿음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짜실라의 첫번째 원리인 민족주의와 두번째 원리인 국제주의는 사회적 민족주의로 압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원리는 상호간 주권에 바탕을 둔 인도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번째 원리인 합의적 민주주의와 네번째 원리인 사회적 복지는 사회적 민주주의로 압축될 수 있는데, 협의에 의한 만장일치(mafakat/musyawahar) 원리가 추구하는 요체는 정치경제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The Birth of Pancasila* 1961, 29-30).

수카르노는 위의 세가지 원리를 다시 하나의 원리(Ekasila)인 상호협동(gotong royong) 원리로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모든 이해관계에 있어서 관용과 자비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카르노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 회교도와 기독교도 사이, 인도네시아인과 외국인 사이 등등에 고똥로용 원리가 수립될 수 있기 위하여 인도네시아국가는 마땅히 고똥로용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The Birth of Pancasila* 1961, 29-30).

III. 반짜실라와 1945년 헌법

수카르노가 제안한 반짜실라는 독립준비위원들간에 3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1945년 헌법전문²⁾의 일부가 되어졌다. 첫번째 단계는 독립준비위원회의 9인 소위원회²⁾의 동의단계이다. 이들 9인은 수카르노가 제안한 반짜실라를 1945년 6월 22일 자카르타헌장으로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1945년 7월 16일 1945년 헌법전문³⁾의 내용을 논의하던 제 2차회의에서 반짜실라를 헌법전문³⁾의 일부로 다음과 같이 삽입할 것을 결정했다. 그 내용은 1) 전지전능한 유일신에 대한 신앙심, 2) 정의롭고 예절 바른 인간성, 3) 인도네시아의 통일, 4) 대중합의와 대의제도를 통한 지혜로운 정책에 의해서 인도되는 민주

2) 9인 소위원회 위원들은 Sukarno, Hatta, Humammad Yamin, Ahmad Subardjo, A.A. Maramis, Abdulkahar Muzakkir, Wachid Hasyim, Abikusno Tjokrosuyoso, Haji Agus Salim 등이다.

3) 헌법전문³⁾의 말미에 삽입된 반짜실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etuhanan Yang Maha Esa, 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 persatuan Indonesia, dan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perwakilan, serta dengan mewujudkan suatu keadilan sosial bagi seluruh rakyat Indonesia."

주의, 그리고 5) 전 인도네시아국민을 위한 사회정의 등이다(Oey, 18; 양승윤 1990, 179-93).

두 번째 단계는 헌법기초위원회의 결정단계이다. 수카르노가 의장으로 그리고 하타와 야민을 배제시킨 가운데 열린 동위원회는 뻘짜실라를 헌법전문문의 일부로 승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헌법의 기본골격을 초안하였다(Oey, 18). 세 번째 단계는 1945년 8월 18일 헌법기초위원회의 초안을 신생독립국의 헌법과 헌법전문으로 공식 채택한 단계이다.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을 선언한후, 다음날 수카르노는 헌법과 뻘짜실라를 포함한 헌법전문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공포하였다(Oey, 18-19). 그렇지만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독립준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처음 제안했던 뻘짜실라의 5가지 원리의 배열순서는 1945년 헌법전문에서는 재조정되어 신에 대한 믿음이 첫번째로, 그리고 국제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정의의 순서로 되었다(국제주의는 수하르토 신질서정권에 들어와서는 반공을 이유로 인도주의로 대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카르타현장에 명시되어 있었던 “회교도들은 이슬람법(sharaiyah)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헌법전문에서 삭제되었다. 헌법 초안을 둘러싸고 표출된 이슬람세력과 뻘짜실라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심각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Oey, 18-1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5/01/24, 30).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언했지만, 네델란드가 다시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1949년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은 실현되지 않은 상태였다. 화란에 대항한 혁명이 성공한 1949년도에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합중국의 수립을 위해 1949년 연방헌법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합중국은 바로 소멸되었고, 1950년 헌법에 의해 단일제인 인도네시아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50년 헌법은 서구식 의회민주주의제도를 채택했다. 그러다가 1959년에 이르러 1950년 헌법은 폐지되었고 대통령제와 함께 1945년 헌법이 수카르노 대통령에 의해 다시 부활되었고, 뻘짜실라는 교도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되었다. 1965년의 불발 쿠데타이래, 수하르토가 정권을 장악하였지만, 1945년 헌법은 그대로 유지되었을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뻘짜실라가 명시된 헌법전문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정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뻘짜실라는 수하르토의 신질서체제하에서 건국이념이며 국가철학으로 공식화되었고, 동시에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도구로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Oey, 19; Weatherbee 1985, 188).

IV. 뻘짜실라와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인도네시아독립의 철학적 기초였던 뻘짜실라는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인도네시아혁명의 기본이념이 되었다. 수카르노에게는 인도네시아의 혁명은 정의롭고 변영된 사회를 향한 그리고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따라서 뻘짜실라는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체제하에서 원래의 의미보다 그의 대내외적 혁명적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정치적 의미로 더욱 활용되었다(Weatherbee 1966, 22-25). 1945년 헌법이 인도네시아를 위한 가장 적절한 헌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1959년 8월 17일 수카르노는 “우리 혁명의 재발견”이라는 독립기념일 연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1960년 최고자문회의 결의를 통해 공화국의 정치선언(Manipol)이 되었다. 정치선언은 5가지 아이디어(USDEK)를 포함하는데, 즉, 1) 1945년 헌법, 2) 인도네시아 사회주의, 3) 교도민주주의, 4) 교도경제, 5)인도네시아 민족주체성 등이다. 뻘짜실라와 조화를 이루면서 Manipol-USDEK은 교도 민주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Morfit 1981, 843; Feith 1963, 366-68).

Manipol-USDEK 이념을 국내정치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수카르노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시기의 정부제도와 기구들을 폐지하였다. 1945년 헌법에 의거하여 내각책임제도가 대통령제도로 바뀌었다. 국민협의회(MPR)는 남았지만 선거를 통한 의회제도는 임명제로 구성되는 고통로용 의회가 대신하였다. 정당활동은 금지되었고, 대신에 다양한 직능집단들, 즉, 농민, 노동자, 교육자, 군인, 공산주의자, 회교도 등이 입법부의 의원으로 임명되었다. 나아가 여러 가지 자문기구들이 수립되어 협의에 의한 만장일치(mafakat/musyawah)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었다. 이러한 기구들에는 최고자문위원회, 국가기획원 실무위원회, 인도네시아중앙협의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Neher 1981, 131-32; Feith 1963, 358-65).

공무원과 교육자 그리고 언론분야에 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하여, Manipol-USDEK 교육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과 국가공기업 종사자들의 재교육용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 고등교육과학장관에 의해 이 프로그램은 관료들 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언론은 검열을 받았으며, 신문사 사장과 편집인은 Manipol-USDEK 이념을 수용한다고 선서해야만 했다(Feith 1963, 368-71). 화란식민세력의 재지배의도에 대항한 인도네시

아 혁명(1945-49년)의 성공경험과 국내에서의 Manipol -USDEK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카르노는 뻘짜실라는 대외적으로 국제적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는 원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카르노는 구 식민세력(OLDEFO)에 대항하여 독립과 평화를 쟁취하려는 국제적 연대하에 있는 신생세력(NEFO)의 지도자로서의 그의 정치적 야망을 정당화하는데 뻘짜실라의 5가지 원리를 다음과같이 확대 적용하였다(Weatherbee 1966, 26).

첫째, 민족주의를 대내적으로는 다종족,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여 수카르노 교도민주주의체제에 순종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독립국가의 수립과 더불어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도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수카르노는 구 식민세력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독립, 즉, 1) 정치적 주권, 2) 경제적 자립, 그리고 3) 문화적 주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Weatherbee 1966, 26).

둘째, 국제주의 원리는 국제적 우의를 증진하는 인도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카르노에게 있어서 국제적 우의란 반제국주의 또는 반식민주의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구 식민세력에 대항하는 신생세력들간의 국제적 연대만을 의미하였다. 이런 점에서 수카르노는 1963년 말레이시아연방 구상에 반대하는 대결정책을 구 식민세력에 대항하는 신생세력의 투쟁의 한 예라고 변명하였다(Weatherbee 1966, 26; Neher 1981, 129).

셋째, 교도민주주의의 탄생에 공헌한 협의에 의한 만장일치(mafakat/musyawah)의 원리는 국제회의나 Maphilindo⁴⁾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만장일치를 얻어내는데 따른 어려움 때문에 국제적 musyawarah 개념으로 발전시키는데에는 점차 한계가 있게 되었다. 결국 Maphilindo에서의 musyawarah는 1964년에 말레이시아를 제외시킨 musyawarah(musyawahar minus Malaysia)가 되었으며, 아시아·아프리카 연대에서는 온건한 세력들이 제외되었고,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했다(Weatherbee 1966, 27-28; Weinstein 1976, 167-170).

넷째, 사회정의 원리 역시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거부하는데 활용되었다. 수카르노의 견해는 경제적 독립없는 정치적 독립은 진정한

4) 1963년 지역사회경제조직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3국으로 결성된 국제기구.

국가독립이 아니며, 외국의 원조는 가난의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제적 착취 내지는 간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카르노는 신생세력들이 그들의 사회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원조없이 국민들의 협동에 의해 자주적으로 경제적 민주주의를 증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Weatherbee 1966, 28; Neher 1981, 130-31).

다섯째, 국제적 상황에서의 신에 대한 믿음의 원리는 종교적 자유를 뜻했다. 1945년 헌법초안의 기초시기부터 수카르노는 일관하여 회교도들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극단적 회교도들이 인도네시아는 반드시 회교국가가 되어야한다는 요구에 대하여 교도민주주의하에서의 뻘짜실라와 Manipol-USDEK 이념에는 회교적 요소가 없다는 주장을 관철해 왔다(Weatherbee 1966, 28-29).

뿐만 아니라 수카르노는 국제적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진보적인 제3세계국가들과 함께 공산주의국가도 중요한 신생세력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내적으로도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을 NASACOM(민족주의자, 종교집단, 공산주의자의 연합체제)의 한 구성요소로 받아들였다(Weatherbee 1966, 28-29). Manipol-USDEK과 뻘짜실라에 대한 수카르노의 웅변술은 그 자신의 독재체제를 고양시켰고, 1963년에는 말레이시아와의 대결구면을 야기시켰으며, 1965년에는 반제국주의 추축국(CONEFO)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그의 독단적이고 과격한 혁명수행 행동은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을 악화시켰고, 인도네시아공산당(PKI)과 군부사이의 국내적 세력균형을 마비시켰다.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교도적 민주주의의 몰락을 가져왔다.

V. 뻘짜실라와 수하르토의 신질서

수하르토의 신질서체제 역시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체제와 같이 뻘짜실라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공식화하면서, 인도네시아국가는 이슬람국가가 아니라 뻘짜실라국가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뻘짜실라의 해석과 적용면에서 신질서체제는 교도민주주의체제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뻘짜실라의 탄생일을 1945년 헌법이 공포된 날인 1945년 8월 18일로 잡고 있다. 이것은 1966년 임시국민협의회(MPRS)와 1973년과 1978년 국민협의회(MPR)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다시 말하여 신질서체제는 수카르노가 독립준비위원회에서 국가독립의 철학적 기초로서 뻘짜실라를 제

안한 1945년 6월 1일을 반짜실라의 탄생일로 잡는 것을 부인한 것이다. 결과로서 지금까지 매년 6월 1일을 반짜실라 탄생일로 기념하여 행해졌던 일체의 공식적인 축하행사는 금지되었다(Oey, 20, 23).

둘째, 신질서체제는 헌법전문에서의 반짜실라의 5가지 원리의 배열순서인 신에 대한 믿음, 국제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정의의 순서를 지지하였지만, 국제주의 원리를 삭제하고 대신 인도주의 원리를 채택하였다. 신질서체제는 수카르노가 그의 연설문인 “The Birth of Pancasila”에서 언급한 국제주의를 교도민주주의 기간동안에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이 악용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결과로서 반짜실라의 인도주의원리는 유일신앙원리와 함께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을 제거하는 도구로서, 1965년 9월 30일의 불발구데타 시기를 전후로한 공산주의자에 대한 대량학살행위를 정당화하는데 활용되었다. 이것은 신질서체제가 반짜실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극우적인 이슬람이나 극좌적인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Oey, 20; Weatherbee 1985, 189).

셋째, 수카르노는 반짜실라를 대내외적으로 혁명수행을 위해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는 개념으로 생각한 반면, 신질서체제는 반짜실라는 전통적인 신비주의적 자바이즘의 구현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것은 “다양성속에서의 통일”을 향한 인도네시아의 이질적인 사회의 조화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공헌한다고 여겼다(Weatherbee 1985, 188;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5/01/24, 31).

넷째, 교도 민주주의체제와 신질서체제 모두는 그들의 의사결정과 행위의 목적은 반짜실라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카르노정권은 혁명을 강조하면서 보다 정치지향적이고 외부지향적이었다. 반면 수하르토 정권은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보다 정책지향적이고 내부지향적이다. 교도민주주의시절 반짜실라와 조화를 이룬 Manipol-USDEK은 수카르노의 정치적 야망과 과격한 혁명적 행동(예를 들면, 1962년의 이리안 자야 출병, 1963-66기간의 말레이시아와의 대결 또는 1965년의 유엔탈퇴 등)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였다. 반면 신질서체제는 반짜실라의 중심 가치가 장기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에 있으며, 경제발전의 정도가 곧 정의롭고 번영된 사회의 진정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신질서정권은 반짜실라를 국민협의회(MPR)에서 결정하는 차기 5년간의 주요 국가시책(GBHN)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78년 국민협의회는 반짜실라 정신을 염두에 두고 국가발전 목표를 “안정, 경제성장, 공평한 분

배”등 3가지로 정했다. 그리고 공평한 분배를 이루기위한 여덟가지 전략적 분야를 1) 기본육구, 2) 교육 3) 보건, 4) 소득, 5) 고용, 6) 여자와 젊은이에 대한 기회균등, 7) 사회정의, 그리고 8) 지역적 안배로 선정했다. 또한 국가발전을 위한 인도네시아 군인(ABRI)의 역할로서 1) 이념적 안보를 포함한 안보, 2) 정치적 안정, 3) 경제적 정의, 그리고 4) 사회적 문화적 조화 등으로 결정했다(Purdy 1985, 4; Morfit 1981, 842, 845-46).

다섯째, 인도네시아 군도 전역에 걸쳐 뻘짜실라 정신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1978년이래 신질서체제도 교도민주주의시기의 Manipol-USDEK 프로그램과 같이 뻘짜실라 정신의 구체적 실천지침을 위한 고등 학습프로그램으로서 P4 프로그램을 국민협의회(MPR)의 결정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수하르토 정권은 수카르노시대의 Manipol-USDEK 프로그램은 NASACOM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뻘짜실라의 원래의 정신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P4 프로그램을 통해 뻘짜실라의 원래의 정신과 근본원리를 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Purdy 1985, 3).

P4 프로그램은 원래 장관급이하의 모든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국가 이념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뻘짜실라교육을 2주간 학습받도록 하였다. P4 프로그램의 학습자료로서 신질서정권은 4가지 책자를 제공하였다. P4학습자료의 처음 두 책자는 각각 뻘짜실라와 1945년 헌법에 대한 해설이다. 이 책자는 Roeslan Abdulgani의 지도하에 중진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 졌다. Roeslan Abdulgani는 수카르노 밑에서 공보부와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동시에 Manipol -USDEK의 주 이념가였었다. 세번째 책자는 국가의 의사결정과 행위의 지침이 되는 주요 국가시책(GBHN)에 대한 분석이다. 마지막 책자는 뻘짜실라와 조화를 이룬 정부의 발전목적, 전략, 정책의 설명서이다 (Morfit 1981, 838-39, 845).

2주동안의 교육과정은 매우 철저하다. 모든 과정에의 출석은 절대적으로 의무적이다. 만일 피교육자가 하루라도 결석하게 되면 그 이유가 질병이나 가정적으로 앓을 당하였다하더라도, 그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재수강하여야만 한다. 참석자들의 게으름에 대해서는 처벌이 따랐고, 마지막에 시험이 주어진다. 전과정에 걸친 모든 이수결과는 엄격히 관리되어 개인의 인사고과표에 기록되어지며, 이것은 차후 승진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Morfit 1981, 839). P4 프로그램은 점차 대학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2-3학년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뻘짜실라 도덕교육(PMP)이 그들 학습과정의 일부로 주어졌다. 나아가 1984년에는 내각의 결정에 의

해 P4 프로그램의 실시대상에 이슬람교사, 개신교 목사, 발리의 종교지도자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직능집단과 사회단체들에게도 P4 프로그램에의 참여 또는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뻘짜실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권장하였다. P4 프로그램의 확대는 신질서정권이 뻘짜실라를 모든 인도네시아인들의 혼과 정신의 근간으로 만들려는 일종의 시민종교(Civic Religion)화 시도라고 볼 수 있다(Morfit 1981, 843; Weatherbee 1985, 188; Purdy 1985, 2-3).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다른 한편으로 엄밀히 말하면, 신질서정권이 자신들의 득세가 이슬람세력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서 단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혁명기를 통하여 군부의 적대세력으로서 이슬람 국가를 지향했던 정통 이슬람 세력의 잠재적인 혁명가능성과 9.30 사태이후에 PKI 소탕에 앞장 섰던 이들의 동원능력을 두려워하여, 이들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 수단의 하나로 뻘짜실라를 이용한 P4 교육과정을 확대시킨 것이다(양승운 1994, 48; 동남아시아연구회 1993, 104).

같은 동기에서 신질서정권은 뻘짜실라의 이념하에 모든 국가조직과 사회단체와 종교세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중조직법을 입법화하였다. 이것은 모든 정당을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사회단체들은 뻘짜실라를 그들 조직의 유일한 이념적 원리로 삼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 법은 또한 당의 상징 역시 모두 뻘짜실라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이는 뻘짜실라를 이용하여 이슬람당이 그들의 교의를 조직이념으로 내세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슬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3개 정당중에서 직능연합체(Golkar)와 비이슬람계 연합체인 인도네시아민주당(PDI)은 대중조직법의 규정을 바로 수용하였다. 이슬람계 연합체인 통일개발당(PPP) 역시 1984년 8월 결국 그들의 유일한 조직이념으로 이슬람 대신 뻘짜실라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PPP의 중심세력인 NU는 탈당하여 순수한 종교적 단체로의 회귀를 선언하였다. 이와같이 이슬람세력이 내부적으로 분열하자, 결과적으로 PPP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무력화되었고, 이슬람도 신질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뻘짜실라정책하에서 여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제도권내의 하나의 종교로서 흡수되어갔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5/01/24, 33).

그러나 이것이 바로 뻘짜실라가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적으로 용인되고 통합된 국가철학 또는 시민종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정치세력이었다가 지금은 비록 대부분이 수

하르토 정권의 탈정치화 정책에 의하여 무력화되기는 했지만, 인도네시아 회교집단이 여전히 뻘짜실라의 반대세력으로서 인도네시아 국가에 통합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사회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독립초기 국가의 건국 이념을 무엇으로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뻘짜실라지지세력과 반대세력, 특히 이슬람세력사이에서의 중요성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 1948년 서부자바에서 발생한 다룰 이슬람(Darul Islam) 운동이나 마슈미 지도자가 연류된 지역분리운동, 그리고 1973년 결혼법을 둘러싼 회교도들의 반대운동 등은 이러한 반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Purdy 1985, 1). 그 외에 1974년 1월의 말라리 사건이후에도 이슬람 세력과 관련된 크고 작은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78년의 와투만 사건, 1984년 8월 만중 뿌리옥 사건, 1989년 람뽕사건, 1994년 매단사건 등은 여전히 뻘짜실라 지지자와 뻘짜실라 반대자들 사이에 뻘짜실라 정책이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5/01/24; 1994/06/16; 양승윤 1993, 168-70; 고우성 1996, 115-16, 129). 이런 점에서 신질서정권과 이슬람세력간의 갈등은 뻘짜실라정책으로 이슬람의 정치적 세력화를 많이 퇴색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정치적 속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VI. 결론

뻘짜실라의 원래의 정신과 발전과정을 고찰해 볼 때, 뻘짜실라가 인도네시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독립과 더불어 다양한 인도네시아 사회를 통일시켰고, 수카르노 정권의 혁명적 행위와 수하르토 정권의 경제발전정책에 상징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뻘짜실라가 탄생되어 1945년 헌법 전문의 일부로 채택된 이래, 뻘짜실라는 1945년 8월 인도네시아 독립을 쟁취하는데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재진입을 시도하려는 화란을 저지시킨 혁명시기(1945-1949년)를 승리로 이끄는 데 공헌하였다. 1949-59년을 제외하면, 뻘짜실라는 국가의 건국이념이자 국가철학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뻘짜실라의 5가지 원리중 특히 민족주의 원리는 매우 의미 심장하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언어, 종족, 지역, 문화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질적 국가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도민주주의 시기동안, 수카르노는 뻘짜실라를 활용하여 대내외적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Manipol-USDEK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켰

다. 그의 Manipol-USDEK 이념은 NASACOM 체제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 특별히 국제주의 원리에 의거한 구 식민세력(OLDEFO)에 대항하는 신생세력(NEFO)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그의 개인적 독재체제와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체성을 고양시켰다. 신질서체제하에도 빨짜실라는 공식적 국가이념으로서 국가통치의 근원이자 정통성 및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빨짜실라는 “안정과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 등 3분야의 동시적 발전을 모색하는 신질서체제의 주요 국가시책의 최후 보루로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빨짜실라 지지세력들은 P4 프로그램을 통하여 빨짜실라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국가철학이자 건국이념으로 주입, 일종의 시민종교화 시킴으로써 인도네시아를 명실공히 빨짜실라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을 인도네시아의 국교로 관철시키려는 이슬람세력들에게 있어서는 빨짜실라가 국가의 기본이념이라는 점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질서 체제가 P4 프로그램과 대중조직법 등을 통해 빨짜실라를 시민종교로 승화시키려고 하지만 이슬람세력에게는 이러한 신질서체제의 인위적 노력이 사실에 있어서는 이슬람세력을 제거 내지는 통제하려는 사회적 통제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같이 빨짜실라는 국가의 통합과 두 개의 정권 즉,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와 수하르토 신질서체제의 정권유지를 위해 순기능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빨짜실라는 사회통합의 역기능적인 갈등의 원인이자 되기도 하는 것이다. 최근의 이슬람부흥운동이나 인도네시아무슬림지식인동맹에 대한 후원, 그리고 여학생의 질박착용 허용과 복권판매의 금지와 같은 이슬람세력에 대한 유향제스처 등은 신질서체제가 여전히 이슬람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럼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이념이라고 표방되고있는 빨짜실라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인도네시아 사회의 모든 계층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나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의 PPP의 지지율 상승은 빨짜실라 반대세력의 잠재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 고 문 헌

- 고우성. 1996.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리더쉽과 정치변동: 수하르토 군부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성주 외. 『동남아의 정치리더쉽』. 서울: 서울프레스.
- 김형준. 1997. “종교자유에 대한 변화하는 해석: 인도네시아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제5호.
- 동남아시아연구회 역. 1993. 『현대 동남아의 이해』. 서울: 서울프레스.
- 양승윤. 1990. 『인도네시아 정치론』. 서울: 명지출판사.
- _____. 1993. “인도네시아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 _____. 1994. “인도네시아 정치의 연속과 변화.” 동남아시아연구회. 『동남아의 정치변동과 경제사회의 발전』.
- The Birth of Pancasila*. 1961. Jakarta: Republic of Indonesi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Commemorating the Birth of Pancasil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24, 1985.
- _____. June 16, 1994.
- Feith, Herbert. 1963. “Dynamic of Guided Democracy.” R. McVey, ed. *Indonesia*. Yale University Human Relations Area.
- Morfit, Michael. 1981. “Pancasila: The Indonesian State Ideology According to the New Order Government.” *Asian Survey*, August.
- Neher, Clark D. 1981. *Politics in Southeast Asia*.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y, Hong Lee. *The Sukarno-Controversies of 1980/81*.
- Purdy, Susan Seldon. 1985. *Legitimation of Power and Authority in a Pluralistic State: Pancasila and Civil Religion in Indonesia*.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Excerpted in *Indonesia Reports-Books & Biblio Supplement No. 8*(June).
- Weatherbee, Donald E. 1966. *Ideology in Indonesia: Sukarno's Indonesian Revol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Southeast Asian Studies.

_____. 1985. "Indonesia in 1984." *Asian Survey*, February.

Weinstein, Franklin B. 1976. *Indonesian Foreign Policy and the Dilemma of Dependence: From Sukarno to Suharto*.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